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와 직업선택의도에 대한 연구

김도희* · 이정원**

목 차

요약

1. 서론

1.1 이론적 배경

1.2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3 연구도구

2.4 자료분석 방법

3. 연구결과

4. 논의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와 직업선택의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3곳의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139부의 유효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가치가 병원 원무·행정직으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현신과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업가치가 의무기록사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현신과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인간관계중심과 체면유지,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가 보건교육사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현신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를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지식추구와 사회현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사회현신, 안정추구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경제우선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전문 의료경영인으로서 직업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이 직업가치 인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선택에 있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제어: 의료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직업가치, 직업선택의도, 직업선택

접수일(2021년 04월 15일), 수정일(1차: 2021년 05월 19일), 게재확정일(2021년 06월 09일)

*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졸업

**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부교수, leeju@deu.ac.kr

1. 서론

1.1 이론적 배경

의료과학의 발달과 생활의 수준 향상으로 인해 인간의 기대수명은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직업 생활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일생의 삶에서 직업은 오랫동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업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사회진출 예정자로 자신이 선택해야 할 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해야 하며 또한 진로정체감도 확립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진로발달과제 중의 한 가지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알아가야 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진로가 무엇인지를 결정짓는 것이다(S.K. Moon, 2017).

현재 대학생 직업상담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만한 직업탐색 활동이나, 직업 세계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이 보고되었고(H.J. Park, 2007), 실제로 학생 생활 연구소나 각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보고되는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청소년기 이후 진로와 적성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K.E. Lee, 1999). 진로를 탐색할 때 가치, 흥미, 적성, 성격 등의 개인 특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직업 가치는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반드시 생각되어야 할 요소이며 이는 진로 결정 후 직업 생활의 적응 및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H.Y. Seon, et al, 2009).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직업 가치에 대한 탐색과 명료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이 직업 활동을 할

때 얻고자하는 가치와 개인의 직업적인 특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적응하기 힘들거나 직업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H.Y. Seon et al. 2007).

McConnell에 따르면 최근 의료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급격한 의료정책 변화가 나타났고,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도 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필요로 하게 되어 전문 의료경영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McConnell, 2000을 H.J. Jang, et al., 2004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의료산업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H.J. Jang, et al., 2004).

의료경영계열 학과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경영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학과 내에서는 전반적인 의료산업에 대한 이해, 회계, 병원조직 인사, 의료마케팅 등의 수업을 진행하여 전문 의료경영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졸업생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 진출의 영역은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관련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 보험회사, 제약, 의료컨설팅 등 의료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도 충분한 직업탐색의 시간을 갖고 자신들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파악해 전문 의료경영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였을 때 이직률이 감소하고,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자

면 특정 분야학과 대상으로는 보건계열 학과, 패션전공 계열, 미용전공 계열 학생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일부 Q-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로는 간호과, 응급구조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H.S. Park, 2011). 하지만 의료경영계열 학생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 진로지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경영계열 특정 분야에 대한 전공학과 대학생들의 직업가치를 연구하고, 각 개인의 직업가치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하여 향후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있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으며 취업준비에 있어 확신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으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 가치, 직업선택 정도를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들의 직업 가치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 가치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직업선택의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3곳의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각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 전 설문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알리고, 본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설문을 시행하였고,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을 때, 다중선행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α 는 0.05, 효과 크기는 0.15, 검정력 0.90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목표 표본 수는 123부였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48부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총 14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4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139부의 유효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직업가치

본 연구에서는 H.J. Park(2007), H.J. Kim(2007), D.S. Jeon(2008)의 연구를 중심으로 내재적 직업 가치를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으로, 외재적 직업 가치는 경제우

선, 체면유지, 안정추구로 하위변수를 구성하였다.

(2) 직업선택의도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 4가지를 병원원무·행정, 의무기록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보건교육사로 정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둘째, 직업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수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일원 배치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3.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에 따른 구성인원과 비율의 분포는 Table 3-1과 같다. 총 유효표본의 수는 139명이었다. 성별은 남성 48명(34.5%), 여성 91명(65.5%)이었다. 학년별로는 저학년(1학년, 2학년) 65명(46.7%), 고

학년(3학년, 4학년) 74명(53.3%)이었다. 종교는 불교 29명(20.9%), 기독교 6명(4.3%), 천주교 5명(3.6%), 무교 98명(70.5%), 기타 1명(0.7%)이었다. 경제적 수준으로는 상 6명(4.3%), 중 112명(80.6%), 하 21명(15.1%)이었다.

Tab. 3-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lass	frequency	%	
gender	M	48	34.5
	F	91	65.5
grade	the lower grades	65	46.5
	the upper grades	74	53.3
have religion	yes	15	29.5
	no	105	70.5
economy level	high	6	4.3
	middle	112	80.6
	low	21	15.1
total	139	100.0	

3.2. 직업가치와 병원원무·행정직에 대한 직업선택의도

분석결과 F값은 10.668, 유의확률은 $p < 0.001$ 이고 수정된 R2 값은 0.296으로 본 회귀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정성을 분산확대지수(VIF) 값과 공차 한계값을 기준으로 판단해본 결과 공차 한계는 0.654에서 0.834 범위 내에 있고, VIF 값은 각 변수들이 1.200에서 1.529 범위 내에 있어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현신($\beta = 0.554, p < 0.001$)과 안정추구($\beta = 0.473, p = 0.001$)가 원무·행정을 선택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직업가치와 의무기록사에 대한 직업 선택의도

분석결과 F값은 3.622, 유의확률은 $p=0.002$ 이고 수정된 R2 값은 0.102로 본 회귀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정성을 분산 확대지수(VIF) 값과 공차 한계값을 기준으로 판단해본 결과 공차 한계는 0.671에서 0.834 범위 내에 있고, VIF 값은 각 변수들이 1.200에서 1.529 범위 내에 있어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헌신($\beta=0.349$, $p=0.010$)과 안정추구($\beta=0.409$, $p=0.004$)가 의무기록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직업가치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직업선택의도

분석결과 F값은 5.043, 유의확률은 $p<0.001$ 이고 수정된 R2 값은 0.186으로 본 회귀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정성을 분산 확대지수(VIF) 값과 공차 한계값을 기준으로 판단해본 결과 공차 한계는 0.671에서 0.834 범위 내에 있고, VIF 값은 각 변수들이 1.200에서 1.529 범위 내에 있어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간관계 중심($\beta=0.632$, $p<0.001$), 체면유지($\beta=0.264$, $p=0.032$), 안정추구($\beta=-0.193$, $p=0.049$)가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직업가치와 보건교육사에 대한 직업 선택의도

분석결과 F값은 2.352, 유의확률은 $p=0.034$ 이고 수정된 R2 값은 0.056으로 본 회귀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정성을 분산 확대지수(VIF) 값과 공차 한계값을 기준으로 판단해본 결과 공차 한계는 0.671에서 0.834 범위 내에 있고, VIF 값은 각 변수들이 1.200에서 1.529 범위 내에 있어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헌신($\beta=0.233$, $p=0.016$)이 보건교육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

(1)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

성별에 따른 지식추구의 차이는 남자가 3.542 ± 0.623 점, 여자가 3.288 ± 0.745 점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6$).

성별에 따른 사회헌신의 차이는 남자가 3.738 ± 0.566 점, 여자가 3.492 ± 0.672 점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033).

(2) 학년에 따른 직업가치

학년에 따른 사회헌신의 차이는 저학년이 3.766 ± 0.635 점으로 나타났고, 고학년이 3.410 ± 0.613 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학년에 따른 안정추구의 차이는 저학년이

4.345±0.648점으로 나타났고, 고학년이 4.087±0.67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4).

(3) 종교에 따른 직업가치

종교에 따른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직업가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경제우선의 차이는 상이 3.722±0.800점, 중이 3.473±0.744점, 하가 3.968±0.767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020),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논의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선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직업가치를 내재적 직업가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과 외재적 직업가치 세 가지 하위요인인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로 구분하여 각 결정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병원원무·행정직과 의무기록사 직업선택의도에 있어 사회헌신과 안정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헌신과 안정추구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원무·행정직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병원원무·행정직 그리고 의무기록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이기에 때문에 환자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마주하는 직업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헌신 추구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병원은 환경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추구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직업선택의도에 있어 인간관계중심과 체면유지, 안정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중심과 체면유지는 높을수록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안정추구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점수가 높게 나왔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직업 특성상 늘 일정한 업무환경을 보일 수 없어 안정추구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사람을 만나고 안내하는 직업의 특성상 인간관계중심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체면유지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보건교육사 직업선택의도에 있어 사회헌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헌신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건교육사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교육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점수들 보다 사회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헌신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H.J. Kim(2007)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자기능력,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의 점수가 높을 때 일 지향 직업의 점수가 높았다고 하였고, 자기능력, 경제우선, 사회인식중시, 안정추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대로 사회헌신의 점수가 낮을수록 보상지향 중심 직업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 사회인식중시, 안정추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지향 중심의 직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연구대상들의 직업가치와 그들의 특성이 반영된 직업군으로의 선택에 관한 연구가 많고, 직업가치 단독으로 연구되기보다는 직업 관련 요인

(진로장벽, 전공 만족, 직업적응)들과 함께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와 같이 직접적으로 의료경영학과에 관련된 직업군과 관련된 직업가치의 연구가 없어 선행연구들과의 정확한 비교 검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업가치는 직업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직업가치가 학과 관련 직업군들의 선택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 차이의 경우 인간관계중심,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식추구와 사회헌신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식추구와 사회헌신의 점수가 높았다. 유사한 연구로는 H.S. Park(2011)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은 내재적 직업가치나 외재적 직업가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한국인은 직업가치 하위요소인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B.S. Kim, et al., 1977을 H.S. Park, 2011에서 재인용)는 견해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있어 직업가치의 관계 결과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각 연구 별로 직업가치를 동일하게 기준잡지 못한 것과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는 독립적이기보다는 다른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년에 따른 직업가치 차이의 경우 사회헌신, 안정추구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인 지식추구,

인간관계중심, 경제우선, 체면유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S. An(1998)의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학년에 내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이 외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K. Kim, et al.(2007)의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학년생들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안정 등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고학년은 자기실현과 같은 내적 가치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K.H. Jang(2008)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수, 지위, 성취,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 2, 3학년으로 갈수록 평균이 감소했지만, 4학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고학년과 저학년의 직업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 고학년일수록 사회헌신 점수와 안정추구의 점수가 낮았던 것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전공지식, 실무 경험 등이 많아 좀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직업가치의 경우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S. Yang(1999)이 공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수, 생계, 경제적 보상의 항목과 사회봉사와 공헌가치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종교를 가진 학생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보다 사회봉사와 공헌가치의 점수가 높았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이 종교를 가진 학생보다 보수, 생계, 경제적 보상의 점수가 높았다. 선행연구와 본연구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과, 변화에 있어 종교의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는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체면유지, 안정추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우선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J. Kang(2014)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성취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안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중간과 낮은 집단에 비해 재량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회경험이 많은 일반인이 사회진출 전의 대학생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고의 차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병원원무·행정직으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헌신과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의무기록사직으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헌신과 안정추구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직업선택에 있어 인간관계중심, 체면유지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직업가치가 보건교육사로의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헌신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문 의료경영인으로서 직업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의료경영계열 대학생들이 직업가치 인식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선택에 있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실증적 분석을 위해 부산광역시 내 의료경영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임의 추출된 대학교가 전국의 모든 대학교를 대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결과변수, 원인 모두를 제시하여 동일요인 측정오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횡단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어 미래를 추정할 수 없어 연구결과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직업선택 의도에서 제시한 4가지 직업군은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경영계열 대학생의 진출 분야는 실제 더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직업군을 포함하여 연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각도로 보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An KangHyun(1998).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18, Vol.17, No.1, 1998(안강현(1998).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17. 1 (1998): 1-17).
- [2] Jang KyungHae(2008). A Study on the Work Values of the College Students-Focused on the Clothing and Textiles Major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1), pp.110-122(장경혜(2008).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 패션 관련 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2(1), pp.110-122).
- [3] Jang HyeJung, Kwon YungDae, Han BoRa, Kim HanHae(2004). The Expected Role and Competency of Graduates Majored in Health Services Management. The Korean Society Of Hospital Administration, 9(2), pp.128-148(장혜정, 권영대, 한보라, 김한혜(2004). 의료경영 전공자의 의료산업내 역할과 역량. 병원경영학회지, 9(2), pp.128-148.)
- [4] Kang MinJu(2014).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Work Value and Job Preference according to Generation,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Konkuk University, Master Thesis(강민주(2014). 세대별,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택도 차이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Kim DongKi, Lee YungHee(2007). Korean Dental Students' Occupational Values for the Dental Profess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4(4), pp.87-103 (김동기, 이영희(2007). 치과대학생의 직업가치. 한국인간발달학회, 14(4), pp.87-103).
- [6] Kim HyeonJu(2007). The Effects of Vocational Choice for Vocational Value of the Married Women. Journal of Women Resources Development, 2008, Vol.10, 21-53(김현주(2007). 기혼여성의 직업가치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성인적자원 개발연구, Vol.10 No.- [2008]).
- [7] Lee keonIn(1999).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Problems and Guida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Wonkwa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20, pp.23-46(이건인(1999). 대학생의 발달특징과 개인적 문제 및 지도, 학생지도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 pp.23-46).
- [8] Moon seongKyu(2017).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areer Value Card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4), pp.95-117 Dec, 2018(문승규(2017). 대학생용 직업가치카드 개발 및 타당화. 취업진로연구, 8(4), pp.95-117 Dec, 2018).
- [9] Park HyeonSuk(2011). A Study on the Work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Care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pp.95-111(박현숙(2011). 일부지역 보건 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4), pp.95-111).
- [10] Park HyeonJu(2007). Analysis of The degree of Need For Vocational Information Based on Vocational Value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 Research, 2007, Vol. 20, No. 3, 149-171(박현주(2007). 전문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따른 직업정보요구도 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2007, vol.20, no.3, pp. 150-171 (22 pages).
- [11] Seon HaeYyeon, Hwang MaeHyang, Kim YungBin(2009). The Change of adolescents' Value Pursuing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9, 10(1), pp.155-173(선혜연, 황매향, 김영빈(2009).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아시아교육연구, 10(1), pp.155-173).
- [12] Seon HaeYyeon, Hwang MaeHyang, Kim YungBin(2007). The Relation of Parents' Support and Adolescents' Intrinsic Value Pursuing.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2), pp.549-563(선혜연, 황매향, 김영빈(2007). 진로상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한국상담학회지, 8(2), pp.549-563).
- [13] Yang JungSeok(1999). Relationship between Attitudinal Career Maturity & Occupational Values of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Dong-a University, Master Thesis(양정석(1999). 공업계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m, DoHee (ehgm1922@naver.com)

Dohee Kim earned her master's degree in Public Health from DongEui University. She is studying Doctoral degree at DongEui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Healthcare Service, Mental Health and Service.



Lee, Jeongwon (leejw@deu.ac.kr)

Jeongwon Lee is a Professor of Healthcare Management at DongEui University. He earned his master's and doctoral degree in Korean Medicine from DongEui University.

A Study on the Occupational Value and Job Choice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Healthcare Management

Do-Hee Kim* · Jeong-won Lee**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using a self-reported survey method to find out the job value and intention of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s in the medical management fiel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in medical management at three four-year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139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used as statistical analysis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dedication and stability were significantly displayed in the selection of jobs for hospital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ositions, and social dedication and stability were significantly displayed in the selection of jobs as medical recorders. In choosing a career as an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ordinator, the focus on human relations, maintaining face, and pursuing stability have been significant. Only social commitment was significantly shown in the choice of occupation as a health educator. A comparison of job valu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ursuit of knowledge and social commitment. In the case of grades, there was a difference in social dedication and stabil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religious or non-religious matters. In the case of economic level, only economic priorities differed.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basic data so that college students in medical management who prepare to take the first step into a professional medical management society can recognize the need for recognition of job value and move in a better direction in choosing a job.

Keywords: Medical Management, Healthcare Administration, Occupational value, job choice intentions, career choice.

* First Author, M.A Graduate of Dong-E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 science of health.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 science of health.